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1. 1 ~ 2021. 1. 16 제239호



▲ 교회 앞마당에서 찬양하는 인도의 어린이들. 제공: WMM

천국을 소유한 기쁨

밝은 표정의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 모여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부끄러워하더니 찬양이 시작되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힌두의 문화 속에서 카스트 제도에 억눌린 세대에게 주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며 이들의 찬양을 받아 내셨다. 인간이 만든 3억 개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위로 그렇게 복음의 빛이 비취셨다. 거짓되고 음란한 3억 개의 우상의 결박이 끊어지는 순간 밀려오는 자유, 천국의 그 감격. 그렇게 발견한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번쩍 들어 올린 양손

과 감격에 찬 마음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전 존재로 천국을 되찾아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태복음 13:44) [GNNEWS]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헝가리,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 헌법 개정

헝가리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의 지원을 받은 개정안 ‘기본법 L조 제1항’은 ‘헝가리는 한 국가의 존립을 위한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 간 결합으로서의 결혼 제도를 보호한다. 가족의 근간은 결혼 및 부모와 자녀 관계이다. 어머니는 여성이고 아버지는 남성이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회에서 134대 45로 통과됐다.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주디트 바가(Judit Varga) 법무장관은 “모든 아이들에게 헝가리 기독교 문화의 가치에 근거한 교육을 제공하고, 출생 시 성별에 따라 아이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헝가리 기본법은 우

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단위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살아 있는 틀이다. 그러나 두 가지 성을 포함한 모든 전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만드는 ‘현대적인’ 개념이 매우 큰 우려가 되고 있다.”며 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탕과 그 내용을 이루는 자연 법칙, 이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창조 질서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경우에 따라 원래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를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현행 기본법이 지닌 가치관이 미래 세대의 유익, 권리, 행복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주장하는 제네바 합의 선언에 동참했으며,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들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가족 제도 보호 정책을 시행해왔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밭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레위기 26:3, 5)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가족 제도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이때, 헝가리 정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때, 헝가리에게 풍요와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른 나라들이 보며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GN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23)

사회적 합의를 하면 낙태가 죄가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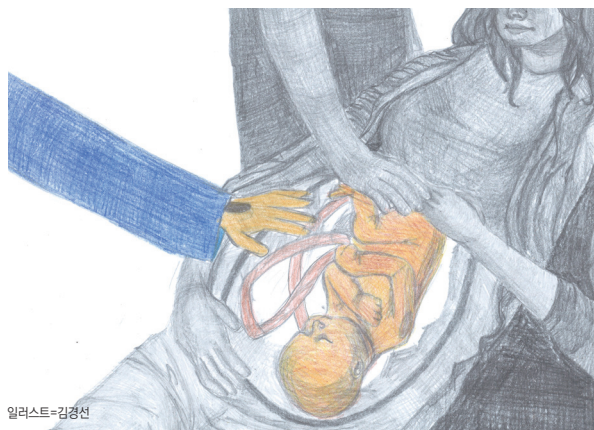
사회 분위기가 점점 바뀌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낙태 합법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인이 우발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욕하고 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뱃속에서 생명을 지워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는 일이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정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여럿이 하면 괜찮고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낙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흡입술의 경우에는 태아의 사지를 조각내어 빨아냅니다. 이렇게 가장 잔인한 살인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입을 싹싹하고 적당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이런 인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반역성입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영적 음모와 교묘하고 악독한 술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확히 정의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 도적, 즉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모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러스트=김경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감아놓은 이 무섭고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을 끊고, 죄와 어둠의 제국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기 위해, 이 죄의 음모와 실상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난 그 자리에서,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새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의 영광을 지금 맛보게 될 것입니다. [GN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예멘과 이라크에서 인터넷으로 10일간 10만 명에게 복음 전달



▲ 올초 코로나바이러스 출현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장 선교 사역은 단허었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선교 사역이 그동안 복음의 불모지인 무슬림권을 대상으로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선교단체 MVP선교회에 따르면, 올초 코로나바이러스 출현 이후 오프라인 사역은 위축됐지만 인터넷을 통한 무슬림권 사역은 단 10일간 예멘과 이라크에서 10만 명에게 복음 영상이 전달됐다.

이 선교회 소식지 벤처선교 2020년 겨울호는 '제4의 선교시대 인터넷선교'라는 현장 소개를 통해 복음 영상을 본 10만 명 가운데 300명과 개인적인 교제가 이뤄졌으며, 그중 150명에게 PDF성경과 복음

영화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선교회 허드슨 선교사는 "무슬림권에서 선교사가 1년에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제시하기가 어렵지만, 인터넷 사역은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구도자를 바로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허드슨 선교사는 "페이스북으로 복음 영상을 노출한 이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300명 가운데 7명은 세례를 받기 원했다."며 "이는 무슬림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로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고백했다.

실제로 그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무슬림들에게 다가서는 경험을 통해 온라인 사역의 장

단점을 파악했다. 4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는 터키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해당 지역에 페이스북을 통한 인터넷 광고를 하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복음을 만난 한 사람은 현재 해당 지역의 가정교회로 연결돼, 신앙 양육을 받고 있다.

또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슬람에 회의를 갖게 된 이라크 군인 출신의 한 형제는 인터넷 복음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지속적으로 신앙 상담을 받은 이후 현재는 세례를 받기 원하고 있다.

현재 내전 상태의 예멘은 한국 정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한국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10일간 페이스북을 통해 복음 영상 등을 공개하고 그 내용에 관심이 있다며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 수백 명에게 성경을 보냈다.

한편, 허드슨 선교사는 "이 같은 인터넷 사역은 온라인만으로는 어려우며, 현장에서 교체하고 양육할 수 있는 현장 사역자가 있어야 구체적인 영접과 성도로서 양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설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목회자 357인, '교회폐쇄법' 헌법소원심판 접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이 18일 '교회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접수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맡은 고영일 변호사(기독교자유통일당 대표)는 "이 법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간판과 십자가가 철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님, 코로나로 교회를 미워하는 일이 확산되어 이제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교회 폐쇄 및 철거가 가능한 법안이 통과될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에 무릎 꿇지 않은 담대함과 용기,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사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청문회 개최 예정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에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VOA는 "이번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님,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의회로 전달되어 온 세상이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완고하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을 온전히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알사바브, 성탄 축하 위해 여행하던 기독교인 공격

소말리아 국경 인근에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버스로 여행하던 기독교인들이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알사바브의 공격을 받았다고 릴리전뉴스서비스(Religion News Service)가 지난 16일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교사들이었으며,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을 앞두고 알사바브 공격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때 교회가 죽음의 권세로 두렵게 만드는 사탄의 종 된 알사바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유함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GPNEWS]

한국 VOM, 새해 전야 핏박 받는 성도 위해 24시간 기도 요청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새해 전야 24시간 동안 핏박 받는 성도들을 위해, 특히 핏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이집트 기독교인 모사(Mosa)를 위해 집중 기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VOM에 따르면 이집트의 기독교인 모사(Mosa)는 경찰에게 전기 고문을 당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매를 맞고 치아가 부러졌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모사는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며, 이에 한국 VOM은 이번 12월 31일, 새해 전야 24시간 기도회의 17번째 시간에 모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예정이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핏박 받는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항상 요청하는 것은 기도"라며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새해 첫날 오후 6시까지 세계 핏박 받는 기독교인들이 요청한 24개의 기도제목을 매시간 페이스북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4시간 기도 운동은 이집트의 모사가 부탁한 기도제목 외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우간다, 이란, 파키스탄, 네팔, 인도, 에리트레아, 아라비아반도, 콜롬비아, 타지키스탄, 쿠바에서 핏박 받는 기독교인들이 부탁한 기도제목이 포함돼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24시간 기도회는 전례가 없는 기도회가 될 것"이라며 "핏박 받는 기독교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부탁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핏박 받는 형제자매들의 실제 사진도 페이스북에 게시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충분한 이해 속에서 기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도제목은 기독교를 제한하거나 기독교에 적대적인 지역의 기독교인을 위한 일반적이고 모호한 기도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검증한 특정 형제자매가 요청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이다. 이 형제자매는 한국 VOM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순



▲ 이집트의 기독교인 모사(Mosa) 형제. 출처: 한국 순교자의소리

교자의소리 단체들의 동역자"라고 말했다.

이 기도 운동은 2020년 12월 31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한국 VOM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VOMKorea.kr)를 통해 공지된다. 한국 VOM은 새해 첫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메시지 정각에 새로운 기도제목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VOM은 중국어와 러시아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해당 언어로 이 기도제목을 나눌 예정이다. [GPNEWS]

알림

2020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0년 한 해 동안 기도해주시고 후원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하실 때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수증을 받아보실 '이메일'이나 '팩스번호'를 알려주세요. 문의: gnmedia@gnmedia.org 전화 ☎ 010-6326-4641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1월 4일 ~ 1월 16일

1월 4일 ~ 1월 9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4(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4-8(10~20시)**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1.5(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5,7-9(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7(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7(05~17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1.8(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8(10시)~9(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2교회 진행중.

1월 11일 ~ 1월 16일 **1.11~15(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11~16(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12(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12~15(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14(0시)~15(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람공동체(정**)010-3697-0641, **1.15(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1.15(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5~16(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복음 한국을 소망하며 - 교육 현장

“지금은 말씀을 가진 정직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더욱이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여건에서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위축된 예배 환경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이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칼빈대학교 김근수 총장을 만나 신학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텐데, 학교는 어떤 상황인지요?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보니 인격 교육이 쉽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육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되는데 매체를 통해서 하니 지식 전달은 되지만,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는 감정은 전달이 안돼요.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병 때문에 교육의 어떤 부분들이 통제를 받아요.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다양하게 인문학도 공부해야 되는데 못하고, 필수 과목만 공부하게 됩니다. 또 등록금도 반환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 2018년 총장으로 취임하실 때 피 묻은 십자가의 의미를 학생들

에게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 사건은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신학은 철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육신적 부활을 몸으로 느끼면서 하는 그런 목회를 하자는 것이 학교의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혁 신학의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 칼빈대의 비전이나 교육을 통한 인재상이 어떤 모습인지요?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에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6.25전쟁 이후에 신학의 필요성을 느껴 총신대학교 야간부로 출발했어요. 우리의 신학 체제는 흔들림이 없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외국에서는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의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인간의 사상을 1차적으로, 성경은 2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교파입니다. 우리 졸업생들도 성경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 학교 교육도 성경 교육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 위기를 맞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실 수 있

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 전, 후의 목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든지 여러 많은 어려운 시련기를 겪어 왔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과 생활이 문제입니다. 신학이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리고,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상식 수준에서 봐도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교회를 업신여기고 박해해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결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목사의 신학관이예요. 결국 성경관이 문제로 귀결되네요. 성경을 하나의 고대 소설처럼 좋은 교훈이나 끄집어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전쟁의 이야기로 풀이하면 삼국지 읽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목사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목사들이 말씀



▲ 김근수 총장(칼빈대학교). © 복음기도신문

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튀어나온 선지자처럼 외치고,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또 시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회사를 보면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직후에 주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고, 특히 그런 영적 대각성의 중심에 대학이 자리 잡았던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 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많이 식어졌어요.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신학교 올 때에는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신학생을 그만두는 줄로 생각할 정도로 철저했는데 요즘 신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식었고 말씀의 열정도 식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갈밭이나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저는 부흥을 경험한 예일대학교 출신인데, 그 예일대에서 회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장로교회가 너무 규격에 엄격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옆에 누가 와도 눈도 안 돌리고 수직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이것을 반대한 게 회중운동이에요. 잔칫집으로 가자는 것이죠. 저는 회중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고 역사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상집 교회가 아니라 잔칫집 교회로 가는 운동이 많습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선교적 교회인데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회개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의 체질이 아니거나 규모를 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운동, 작은 승리 운동,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 졸업생 중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많습니다.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1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 중에 현재 선교사들만 700여 가정이 나가 있어요.”

- 총장님께서 지금 후학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예일대에서 공부할 때, 인상 깊었던 것이 백낙준 박사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예일대 초기 졸업생입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아서 학생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총장님보다는 아버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톨이 필요해요. 자기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어학 공부에 힘을 기울이려고 애를 써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영어도 한 마디 못하면서 지도자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제 공통 방언이니까 영어부터 하라. 방학 때는 영어만 하라.’고 합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끝으로 원로로서 이 시대를 향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보다 먼저 좋은 목사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있어요. 좋은 바탕이 있어야 좋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인물은 큰 인물 아니고, 말씀에 녹아 있는 따뜻한 인품을 가진 정직한 목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하는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가르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PNEWS]

대담 김강호 발행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 설립 가능

초중등 과정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국가가 책정한 교육과정 대신 대안학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과정으로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 같은 대안학교 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의무유예 기관으로, 또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춘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대안학교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방치돼 온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가결돼 대안학교가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대안학교법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1,2차 법제화에 이은 3차 대안학

교의 법제화에 해당한다.”며, “내년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국내 300여 개 기독교대안학교가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며, 정식으로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부소장은 “그동안 대안학교 관련법에 따른 학교 설립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대안학교들이 혜택을 입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안학교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체육장을 포함한 건물과 교지 등의 시설과 학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대안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항을 마련, 학생의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

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안학교를 외국 대학 입학에 위한 과정이나 외국어 학습만을 위한 과정으로는 운영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학교들은 정부 인가 학교로 등록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 통제 아래 설립 인가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여전히 비인가 교육 기관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92년에 도입된 외국어고등학교를 33년만에, 98년 도입된 국제고등학교를 27년만에, 2001년에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24년만인 2025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 학생과 학교측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교육 정책 일관성에 흠집을 남겼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46)

진화론의 적극적 행동 우생학... 그 다음은 유아 살해

우생학이란 '선별을 통한 인간 개량'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선별이란 말은 결국 '선택(select)'을 의미한다. 앞으로 살아야 할 사람과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을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우생학은 인간에게 진화론을 적용하는 가장 적극적 행동이다. 이처럼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진화의 메커니즘인 '자연 선택'을 받아들여지게 되며, 자연의 일부분인 자신도 그 진화 역사 속에서 선택을 받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당연히 선택을 받는 위치보다 선택을 하는 위치에 앉고 싶어 한다.

마거릿 생어는 '선택하는 위치'에서 우생학을 연결시킨 여성이다. 백인에게는 자유로운 성관계를 장려하고 흑인에게는 성을 통제하고 '불임'을 실행시키려 했다. 이런 목적으로 그녀는 우생학 단체인 '미국 출생 통제 연맹(American Birth Control League, 1921)'을 설립했으며, 1942년에 우생학적 뉘앙스를 감추기 위해 '가족 계획(Planned

Parenthood)'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생어의 운동은 단지 불임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는 성 평등이나 낙태 등의 극단적인 페미니즘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낙태는 낙태로 끝나지 않는다. 낙태의 정당성을 '태어날 사람을 위해서'와 '인류를 위해서'라고 멋지게 포장한 이상, 태어난 후에 죽이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태어난 후에 태아를 죽이는 것을 '출생 후 낙태(after-birth abortion)'라고 부른다. 그러나 말이 낙태지 이는 '유아 살해(infanticide)'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실제로 유아 살해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윤리주의자'인 프린스턴 대학 윤리학 교수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일정한 나이까지의 유아 살해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한다. "장애아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윤리적으로 같지 않다. 신생아는 인격의 본질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신생아가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라...



▲ 우생학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출처: pixabay

'잠재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아기가 기대할 만큼의 건강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모는 28일 등 일정 기간 내에 신생아를 안락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말이 옳다면, 수면 중이나 수면제를 먹인 후에 무감각적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합법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는 자신의 깨어있는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주장은 나치 독일의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 단지

나치는 태어난 지 28일이 아니라, 3년 내에 죽일 수 있는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과연 28일이나 3년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

윤리에 대해 여러 권을 집필한 주빌리니 박사는 '출생 후 낙태: 아기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우리가 말하는 '출생 후 낙태'는 신생아가 장애인이나 더러워 모든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 두 저자는 다윈증후군은 출산 전 검사에

서 64%만 진단이 가능하므로 "(출산 후에) 장애인으로 판명될 경우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사회주의국가가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족과 사회 전체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쓴 후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자, 공동저자인 미네르바는 "자유 사회의 가치에 반대하는 광신자들"이라고 답변했다.

우생학이란 단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혐오스러운 단어가 되어 오늘날에는 사라졌다. 그러나 위의 주장을 보면 우생학적 사고가 여전히 우리 주위와 학교 안에 살아,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단어만 못 쓰게 하는 것이지 그 사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GPNEWS]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회장)

기획 | 기도 24·365 완주감사예배

에릭 폴리 목사, "통일이 되면 북한교회가 한국교회 깨울 것"

2020 기도24·365 온라인 완주감사예배... 9000여 명 참여



▲ 한국 순교자의소리 에릭 폴리 목사(왼쪽)·현숙 폴리 대표(왼쪽). ©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 완주감사예배가 지난 12월 17일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실시간으로 500여 명이, 누적으로 12월 말 현재 9000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한 이번 집회의 주제는 '기다리며 기도하라'이다.

매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모임인 기도24·365는 매년 말 한 해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회복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모임을 가져왔다.

이번 집회에 강사로 참여한 에릭 폴리 목사(한국 순교자의소리)는 "한국교회는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북한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우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교회가 굳건하게 살아 있으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굳센 믿음으로 서 있다"고 말했다.

폴리 목사는 "돈과 자유가 많은 한국교회는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지만, 북한과 같이 핍박이 극심한 지역 교회는 계속 강해지며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탈북자와 북한교회를 돕는 사역을 감당해 온 폴리 목사는 "북한은 자유도 없고 돈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고 전하며 "대신 북

한 지하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핍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온 이후, 다음에 순교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순교가 먼저 오고, 그 결과로 핍박이 온다"고 밝혔다.

특히 핍박에 대해, 그는 신실한 증인이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세상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먼저 신실한 증인이 나와야 그 결과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한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실한 증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폴리 목사는 "그래서 핍박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며 "핍박이 오면 신실한 증인이 되면 된다"고 말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3가지 유형의 순교자가 있다며,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은 초록색 순교자, 세상에 대해 죽은 순교자는 흰색 순교자,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을 빨간색 순교자라고 구분했다. 자신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으면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순교자의소리가 20년간 사역하면서 보게 된 38명의 순교자 대부분은 약한 사람들로 빨간색 순교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단체가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해 7채의 집이 불타고 5명을 살해했다. 2명은 목이 잘렸고 1명은 목이 잘렸다. 1명은 불에 타 숨졌다."면서 "이는 세상을 이긴 자들의 모습이다. 승리한 사람이지만 희생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24시간 365일 기도의 개념을 담은 기도24·365 공동선언문 발기인인 김용의 선교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문제가 종결된다. 정의의 왕이 오시는 그 일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또 "그 날의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번만 더 순종하여 우리의 기도로 다시 오실 주님께 순종을 드리자"며 열방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결단임을 강조했다. [GPNEWS]

복음의 능력

어린양을 따르려면

문제는 당신이 완전하거나 아니라 완전함을 갈망하느냐 하는 것이다. 혹시 당신은 사교적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람과 비를 주셨고, 당신의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주셨다. 놀라운 지성과 여러 가지 훌륭한 능력들도 주셨다. 당신을 지켜 주시고, 당신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당신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시고, 죽음 후에 당신을 받아들여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께 고작 과자 부스러기 같은 시간을 드리면서 어린양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하지 말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린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올해 우리 전도팀에서 1만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최근 본지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우석 집사였다. 전도용으로 제작된 복음드라마 영상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51화가 언제 나오느냐는 것이었다. 이 영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50화까지 다 전해줘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침 51편을 제작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다음 일정을 안내할 수 있었다. 우 집사의 넘치는 구령의 열정이 전화기 너머로 전달됐다. 매일 전도한다는 우 집사를 만나기 위해 포항으로 달려갔다.

우석 집사의 집에 들어서니 커다란 건빵 한 박스가 눈에 띄었다. 전도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식탁 옆에는 아파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의 방호수가 적혀져 있는 종이 붙어 있었다. 호수에 동그라미 표시가 된 것도 있었다. 전도명함을 붙인 마스크를 전달해 준 집들을 그렇게 구분해 놓았다. 방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성경의 계보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다. 거실 테이블에는 그가 만든 기도책과 중보기도카드, 전도지와 전도명함이 흩어져 있었다. 아늑한 집이라기보다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위해 구별된 공간 같아 보였다.

집은 기도와 전도의 삶을 위한 보급소

-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년 중에 수없이 많은 날을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농사를 마치고 저녁을 차려놓고는 매일 밤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새벽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잔 날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교회 안 가면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청년 시절에 기도와 전도에 열정적인 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제게도 기도와 전도에 열정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의 장모님이 한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시고 교육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제게도 계속 여러 훈련을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훈련을 못 받다가 거부할 수 없는 때가 왔어요.”

- 그게 어떤 때였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과 자녀들의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아이들을 구박하게 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운동



구령의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석 집사(기쁨의 교회)

을 통해 선교를 하려던 아들은 중학교 때 부상을 당하고 그만둘 위기도 있었어요. 주님이 절망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새벽기도와 전도는 계속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여러 갈급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선교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때, 제가 회복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알아가게 됐어요. 이전에는 모든 일에 남 탓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적용시켰어요. 훈련 마지막 과정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 선교현장의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폭탄테러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고 했어요. 테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배 이상 늘어난 간증을 보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 믿음은 뭐지? 그 뒤로부터 전도를 죽기 살기로 했어요. 선교지에서는 총에 맞아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면서 나는 뭐하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함께 전도하자고 연락을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예배 끝나고 7시부터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2~3년 동안 5~6명의 선교회식

구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죠.”

선교지에서 총 맞아 가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 전도의 무대가 포항으로 바뀌셨군요.

“작년 1월에 포항으로 내려와서 섬길 교회를 찾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직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명단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직원들을 섬겼어요. 물도 떠주고, 커피도 타줬죠. 인턴들은 기념품 같은 것이 나와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 몫으로 받은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떡 같은 것도 받으면 모두 전도 대상자들에게 줬어요. 저는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지시하면 되는데도, 직원들 일을 도와주면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6~7개월 지나면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셨어요.”

- 결실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군요.

“우리 직원들과 거래처 직원까지 5명이 영접을 했어요. 제가 내년에는 연고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퇴근하고 성경을 한 장씩 읽자고 했어요. 12월 말에는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모여서 성경을 보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요. 직장 내에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자 이야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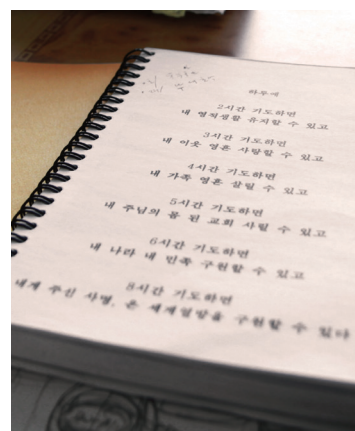
- 전도에 삶이 맞춰져있군요. 전도는 어떻게 하세요?

“주말에는 잠자는 시간과 예배 시간을 빼놓고 종일 전도를 했어요.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는 2명이 함께 참여했는데 지금은 27명이 함께해요. 우리는 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30분은 회개기도를 하고, 이후 30분은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 전심, 전력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기도제목이 많아져서 기도책을 만들었어요. 전도를 위해 말씀을 분류해서 기도정보를 정리했어요. 뒷부분에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북한, 세계선교, 미전도 종족, 이스라엘, 미국,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한 기도제목도 넣었어요.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기도를 빠뜨리게 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책을 만들어 기도했어요. 휴가 때는 기간 내내 이 책으로 기도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책을 만들었고, 또 전도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정리한 책도 만들었어요. 전도를 하다보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카드를 만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 전도뿐만 아니라 기도 역시 많이 하시는군요.

“전도한 사람이 그 영혼을 관리할 수 없어요.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올해는 팀을 이루어 복음을 전한 사람이 1만 3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서 영접기도로 결신한 사람은 307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 새벽마다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그렇게 8시까지 기도하고 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해요.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 전도하면서 힘드신 적은 없었나요?



▲ 우석 집사가 직접 제작한 기도책자. © 복음기도신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시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수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데, 거기서 논쟁하지는 않아요. 그저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여름에 생수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인근 가게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시청에 신고해서 교회로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는 가게에 찾아가 영업 손해액을 매월 지급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 그렇게까지 전도를 하셨군요.

“평일에는 주로 저 혼자 전도해요. 일과 중 현장 업무를 볼 때는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짬짬이 전도명함으로 전도하고, 퇴근하면 1시간 정도 전도파켓을 들거나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해요.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분들에게는 마스크에 전도명함을 붙여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드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라인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엘리베이터까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나와 함께 추수하러 가자.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다 됐다.’면서요. 그렇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면 이렇게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 말씀을 들어보니 단순히 전도지만 나눠주시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다음세대 같은 경우는 전도할 수 있는 책을 들고 나가서 복음에 대해 나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천국, 죄,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길게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듣고, 영접기도까지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마스크와 요한복음 성경을 줘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중 90%는 영접을 해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해주세요. ‘너는 입만 열려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 이런 삶을 언제부터 사셨나요?

“포항에 내려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못했어요. 포항에서는 아무래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4)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운 상황, 절망적인 현실 앞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진리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분의 언약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1장 25절~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신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부활 할 것을 믿는가? 우리에게서 아무리 가능성을 따져 봐도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

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주님은 동서남북, 이곳, 저곳으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만드시 땅 끝에서 찾아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아무리 깊은 곳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끌어올리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다.

모든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법.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대



일러스트=이예원

적하고, 길길이 날뛰며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합 2:14) 하나님이 언약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일점일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적

의 세력보다 더 힘 있게 지금도 전진해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의 상황, 어떤 수치나 통계가 우리를 낙담케 할 수 있다. 마른 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오히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다. 원인 분석은 이제 내려놓자.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 주님만을 따라 오다 다 망한 것 같은 때를 만났다면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2018년 3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복음 마스크 출시

고철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항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그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복음기도총서2

GPM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시간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자살하려던 분에게 복음 전해

까요. 전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아내와 가족들은 안양에 있고, 아들이 포항에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서 저와 2년 함께 지냈는데, 이제 아들이 탁구 실업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안양으로 올라갔어요. 저도 내년에는 연고지로 복귀하니까 그 전까지 이곳에서 제자를 삼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을 전하다 만난 분이예요. 어떤 가게에 복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어르신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때 사장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자살하겠다는 전화였어요. 그때 저를 바꿔주셨어요. 가게에 한 번만 왔다가라고 해서 자살하겠다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평평 울면서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그 가게가 청소가 되어 그분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았어요. 또한 상처를 많이 주었던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양육을 받은 제자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이분들이 든든한 교회로 일어서시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섬기고 싶어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칼럼 아파트 라인에 전도지를 준 주민들 이름을 벽에 써 붙여 놓은 모습. 제광 우석집사



나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는 요리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주말에도 일하고 장기간 근무하기보다 1~2년 근무하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할 때마다 늘 성령님은 나에게 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다.

여호와 이레! 정말로 내가 나아가야 할 시기마다 주님은 그 길을 예비하셨고 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일을 하느라 주일성수를 못할 때는 말씀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예배를 몇 개월간 못 드리는 중에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게 하셔서 직장 시간을 조정하거나 그만두고 새 일을 찾게 하셨다. 지금도 예비하신대로 집에서 20분 거리에 배달전문 음식점에 야간조로 취업하여 주

일성수도 할 수 있게 하셨다. 나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다. 언제나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



일러스트=고은선

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먼저 예비하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휘)

진짜 소망을 발견하다

나는 존재적으로 성공에 대한 야망이 컸다. 20살 때 도서관에 가서 자기 개발서적을 50권 정도는 봤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명성을 얻고 싶

었다. “한 번뿐인 인생, 확실하게 살자! 뭐든지 최고가 되자.”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그러나 문제는 실력

이 없었다. 22살 때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고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다. 복음의 빛 앞에서 나의 모든 최선이 썩어질 것,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내 마음을 완전히 쏟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유가 찾아왔다.

이후 선교훈련을 받게 되

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선교훈련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그분들이 나눠주셨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다 망했으나 주님을 만났다. 나도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다. 나도 드디어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에 나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 상황에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새벽이슬 같은 20대, 26살에 선교사로 주님께 나를 드렸다. (김흥한) [GPNEWS]

그림 묵상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나는 아이러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누구나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주님은 천국을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좁쌀만한 겨자씨만 본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담겨 있다. 새들이 깃들 일 만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다.

씨앗의 크기나 능력은 상관없다. 주님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두셨다. 주님은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 천국을 나타내실 수 있다. 믿음으로 생명을 취하기만 하면... [GPNEWS]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국제인권단,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에게 대 재앙



Activists are filling plastic bottles with rice, cash and K-Pop loaded USB sticks...

▲ 북한으로 보낼 쌀을 담은 페트병 속에 성경이 담긴 USB를 담아 보내는 모습. 출처: 유튜브 채널 AFP News 캡처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정보유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재단

(HRF)’은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필수적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범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 대표는 이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 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며 “탈북자들만이 인터넷, 외부 우편,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비영리 단체로 북한에 USB 같은 이동식저장

장치에 성경을 담아 보내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독교연대(ICC)의 지나 고(Gina Goh)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국제기독교연대의 협력 단체들이 수만 명

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그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안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인권문제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GPNEWS]

유엔, 16년째 北인권 결의 채택... 한국 공동제안국 2년 째 불참

유엔이 지난 16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로 16년 연속 채택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유엔은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컨센서스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번 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고문 및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국내외 47개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의 압박이 약해진다.”며 “한국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라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외 NGO들은 서한에서 유엔 총회에서 통

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최근 2년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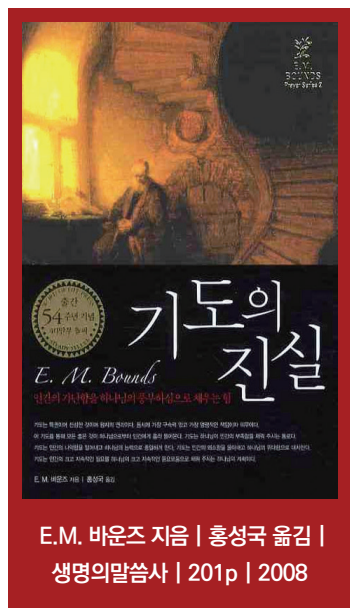


▲ 북한인권결의안 논의하는 유엔 총회 본회의. 출처: 유튜브 채널 United Nations 캡처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E.M. 바운즈 <기도의 진실>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얻기 위해 내민 자녀의 손이다



“나는 하루살이 피조물로 내 인생은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스쳐간다.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순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변하지 않는 영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존재이다.” 이 책은 존 웨슬리의 위와 같은 글을 인용하며 첫 페이지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아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직면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궁핍한가? 거지가 연명하는 길은 구걸인 것처럼, 인간은 그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풍부하심으로 채워야만 살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풍부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명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기도로 연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데, 만약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물론 기도 응답이 늘 ‘yes’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다, 아니다, 기다려라.’의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불통인 전

화기처럼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일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가 없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통한 기도의 풍성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얻기 위해 내민 자녀의 손이다. 듣고 느끼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귀에,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능력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이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고 있진 않은지, 기도에 대한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오류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예수님은 바쁘시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을 하셔야 하는 분이셨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진 않으셨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은 기도하셨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모든 노력 중에 가장 신령한 것이며 모든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야함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복음의 삶은 기도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골방에서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나에게도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하루라는 시간을 살게 하는 힘이 아침 묵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어진다. 이를 경험하게 된다. 특별히 지체들과 두세 사람이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 시간은 기도를 전부로 누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 말씀 기도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고, 나의 궁핍함과 어리석음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

는 시간이다.

또 이 책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조(conformity)’되는 시간이다. 동조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이 없으셨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셨기 때문이었다. 딱 한 번,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잔을 거두시기를 기도했지만 겻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로 마무리된다.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책의 말미에 브라더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단순하고 소박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고, 이것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었다고 소개한다. 로렌스처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 기도하는 신부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GPNWS]

김은영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어린이 소두증, 발작, 머리 박기,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태아알코올증후군 아닐까?”

임신한 여성의 과도한 음주가 유산이나 태아의 정신장애, 저체중, 선천성 장애를 일으키는 태아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FAS)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등장했다.

1923년에 설립돼 우리나라 여성들의 계몽활동을 벌여온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가 이화의료원과 협력, 이대목동병원에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를 아시아지역 최초로 설립, 지난 11월 19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가이드’라는 부제로 태아알코올증후군(앤 스트라이스 구스 저, 오소연·김현경 옮김, 코리아닷컴, 2020)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이 같은 증후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무려 63만 명에 이른다.

임신 중 음주의 양이나 횟수, 시기와 관계없이 다 영향을 미치지만, 임신초기 음주는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FAS 환자들의 평균 사망 나이는 34세로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도 5배 이상이나 높다.

FAS의 발견과 대처가 어려운 것은 FAS를 지니고 평생 자신의 질병을 모르고 살아가면,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유년기 FAS나 알코올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수께끼처럼 남는다.

스트라이스구스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기는 소두증, 안면기형, 중추신경 마비 현상을 ▲유아기 때는 머리 박기, 몸 흔들기, 신경 기능 장애를 보이고 ▲아동기는 과잉 행동, 균형 감각 이상, 걸음걸이 이상 등의 현상, ▲학령기에는 주의력 결핍, 판단력 결핍 현상을 나타낸다.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알코올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나 우리나라처럼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 풍토에서 여성의 금주는, 본인의 결단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회장 김영주 화백은 “임신 여성의 음주가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나 크다며 임신 여성의 금주, 금연 캠페인과 주류 유통 연구와 함께 다양한 예방 정책 도입과 교육으로 100% 근

절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미국 보건당국은 1997년 ‘여성들은 임신 중 반드시 금주하라.’고 공포하고 FAS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절제한 주류 판매와 주류 광고로 강간, 음주운전을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르웨이의 경우, 주류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공휴일과 선거일, 일요일은 주류 판매를 금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은 주중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절제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크리스틴 토티링 선교사에 의해 이화학당에서 1923년에

시작된 이후, ‘하나님과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절제운동을 벌여왔다. 6.25전쟁 이후 김활란 여사 등이 참여, 어려운 한국 경제에서 낭비 풍조에 빠지지 말고 기독교 여성들이 솔선해서 절제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는 1883년 프랜시스 윌라드 여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는 말씀을 의지하여, 알코올과 모든 중독성 식품으로부터 인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 이후 이 모임은 가정을 보호하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참정권 운동을 일으켰다. 문의: ☎ 02-2650-5013(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 [GPNWS]



▲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 개소식. 제공: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12. 3 ~ 12. 22 (가나다 순)

개인

권순호 김경선 김다경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김태완 박상기 박성규 박신희 박현숙 서은철 신용선 안민자 안영숙 우 석 유국주 은종숙 이영심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임주 최정미 최정숙 최정숙 하은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김포꿈꾸는교회 고현교회 쉼문광교회 삼척물대동산교회 열매교회 양덕원감리교회 토론토한인침례교회 오에그교회 은혜신일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라교회 하원교회 헬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